

## ‘역시 IT’ 월수출 70억불 돌파

글 | 송윤철 KAIT 대외협력팀장

국내 IT 수출이 월간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인 70억 달러를 돌파했다. 정보통신부는 지난 10월 IT수출이 지난 해 같은 기간보다 5.4% 증가한 71억3000만 달러로 잠정 집계돼 지난해 3월 최초로 60억 달러대에 진입한 이후, 19개월 만에 70억 달러대로 성장했다고 발표했다.

국내 IT수출은 지난 9월에도 69억1000만 달러를 기록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10월의 70억 달러 돌파는 불과 한달 만에 갱신한 기록으로, IT수출의 본격적인 성장세 회복을 의미하고 있다. 또한 미국·중국 등 세계 경제의 성장세 지속, FRB의 금리인상에 따른 원-달러 환율 상승 기조 등 대외여건 호전이 예상돼 11월, 12월에도 현재와 같은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반도체와 휴대전화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단점도 있다. 10월 IT수출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이를 쉽게 알 수 있다. 반도체·휴대전화 등은 수출이 증가한 반면, 셋톱박스·PC·디지털TV 등은 감소했다.

수출 지역 역시 특정국가에 집중돼 있다. 중국은 휴대전화, 반도체 수출증가의 영향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6% 증가한 23억9000만 달러의 수출을 기록했다. 특히 중국의 자국내 컴퓨터 생산에 대한 부품수요 증가로 대 중국 반도체 수출이 크게 증가했다. 유럽연합(EU) 역시 휴대전화의 수출이 38.6% 증가한 8억5000만 달러를 나타냈다.

반면, 미국은 국내기업들이 원-달러 환율하락에 따른 영향으로 휴대전화, 반도체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5.3% 감소한 9억5000만 달러에 그쳤으며 일본도 원-엔화 환율 하락 등으로 7.1% 감소한 3억9000만 달러 수출에 그쳤다.

국내 IT수출이 반도체, 휴대전화를 중심으로 중국 EU에 치우쳐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특히 과거 국내 수출을 주도했던 미국과 일본의 수출이 점차 줄고 있다는 점은 분명 우려될 사항이다. 국내 수출을 주도하고 있는 IT 수출이 점차 늘고 있다는 점은 분명 환영할 만한 일이나, 그 품목이나 대상국가가 한정돼 있다는 아쉬움이 든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신흥국가로 떠오르고 있는 인도 러시아 등과 아직 IT가 미친한 동남아시아로 수출다변화를 꾀해야 한다. 품목 역시 반도체와 휴대전화 의존도에서 벗어나야 한다.

기존 백색가전 또는 자동차와 IT의 접목, 통방융합에 따른 다양한 신기술이 탄생되고 있다. 정부나 기업들 역시 이를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보다 발 빠르게 움직여 향후에는 보다 많은 품목으로 더 많은 국가를 대상으로 수출이 이뤄지길 기대한다.